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2주 】

세례식	김기석 목사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중심을 찾아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고독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 임해주시시오. 우리 삶 속에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신비를 향해 마음과 영혼을 열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로 부산했던 나날들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 입장이 달라도 피차 존중하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열린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시오. 실망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겸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미7:18	인도자
♠ 교 독 문	30. 시편 139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남홍 선생 II.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37. 인애하신 구세주여	다함께
성경봉독	I. 창11:1-9	인도자
	II. 행4:5-12	문영혜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바벨탑	김기석 목사
	II. 머릿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09.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싫어 버린 돌을 주님은 머릿돌로 삼아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선물로 부여받은 시간을 불평과 탄식 속에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주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끝내 낙심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21)	말씀 : 김재흥 목사
기도: 이기분 권사/구명자 권사(25)	기도 : 정진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한성건 선생 구성실 장로	인 도 자 김훈동 집사

4월	영접위원	이용한	박창운	박규석	최숙화	노순옥	이증자
	헌금위원	한완식	김정길	김중수	조병주	김시영	김명순

거꾸로 걷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바다에 떠 있던 빙하들이 떠밀리기 시작했는데, 유심히 보니 거꾸로 바람을 거슬러 오르는 빙하가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교적 얼음덩이가 작은 빙하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렸지만, 바다 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빙하들은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다 밑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걸음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부분이지만 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얼음덩이들은 위에서 불어대는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다 밑 조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작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밀린다. 작은 개울물에도 떠내려간다. 그러나 살아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하여도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때로는 세찬 폭포를 뛰어오르기도 한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자기 세계 없이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자기 세계 없이 시류를 쫓는 이들의 삶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간다. 바람이 동에서 불면 서쪽으로, 북쪽에서 불면 남쪽으로 떠밀린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것을 한다. 남이 뛰면 덩달아 뛰고, 남이 누우면 덩달아 눕는다. 그러나 자기 세계를 가진 이는 시류와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간다. 거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시시때때로 바뀌어도 바뀌는 시류와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의 삶은 어떤 땐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떤 땐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아름답다. 그는 이미 행복을 자기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시류를 따르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남들이 다 자식들 과외를 시킬 때 자식을 데리고 들로 나가 가을 들판을 함께 걷는 것이, 남들이 다 자식들을 밤늦도록 학원에 보낼 때 자식과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헤아린다는 것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

음으로 격려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한다. 다들 뛰는데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련해 보이는지를 안다. 그래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자기의 길을 자기 걸음으로 걷는 데 있는 법, 시대의 일방적인 풍조를 거꾸로 걷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3일의 비밀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할머니, ‘3일의 비밀’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 즉 무덤에서 3일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지요. 그래서 나에게서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납니다.”

농사는 하늘이 일곱 뭇, 농부가 세 뭇

농부가 위대한 것은 농사란 농부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데 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새벽부터 피약별 이글대는 한 낮, 밤늦은 시간까지 자식 돌보듯이 곡식들 돌보는 농부의 수고와 정성. 그러나 그럴수록 농부는 안다. 자신이 농사일을 하지만 농사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긴긴 가물 끝에 곡식이 타 들어가면 곡식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타 들어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 홍수로 곡식이 물에 잠기면 물에 잠긴 곡식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자신이 다 한다 하지 않고 하늘이 일곱 뭇, 농부가 세 뭇이라 했던 말을, 세 뭇이라 하면서도 마음이 떨렸을 농부의 마음을 머리 숙여 배우고 싶다.

부활절 전후

섬진강 가의 매화라든가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잎이
지천의 수선화나 히아신스보다
내게는 더 곱고 더 그림기야 하지만
사순절 동안에 죽은 동생의 혼이
여기까지 찾아와 글썽이는 요즈음,
『뉴스위크』 잡지는 화려한 단장으로
‘과연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한다.

믿을 수 있는가, 매끄럽고 빠른 세월아,
부활절 며칠 전에는 함박눈 내리고
따뜻하고 어두운 땅 밑의 뿌리는
급한 마음 얼굴 내미는 나뭇잎을 향해
물 몇 방울 길어올리는 멀고 예민한 길,
그 길 따라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매화나 동백이나 수선화나 히아신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가는 목을 씻어가며
부활의 구석구석에서 깔깔 웃고 있구나.
(마중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창운 허정윤 김근종 정옥영 이인웅 이광용 형인순 김 극 이유선
방극숙

월정헌금:

이갑재 김정섭 임원민 임수연

감사헌금:

안경숙 안길상 이형숙 이권화 김진권 최희정 김창원 정지은 구명자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김주현 김재영 박병선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김 애 경	최 희 영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윤 수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소 순	이 권 화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숙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순 복	백 묘 현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장 혜 숙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박 현 우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구 성 실	김 정 섭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장애인선교주일** :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주일헌금은 모두 장애인 단체에 보내겠습니다.
2. **아름다운 원로** : 4월 21일(수)부터 22일까지 보성과 낙안, 지리산과 남원을 두루 유람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른 여섯 분이 동행하십니다.
3. **월례회** :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예배후에 있습니다.
4. **신앙강좌** :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올해 두 번째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전성은(셋별중학교 교장, 교육혁신위원장)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5. **가족찬양제** : 5월 2일은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오후집회 시간에 가족 찬양제를 갖습니다. 가족들이 찬양으로 하나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청해주십시오.
6. **교회생활사진전** : 다음 주일에는 지난 1년간 우리 신앙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별세** : 지난 월요일(12일) 최영선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8. **신앙실천** :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곁에 멈춰서고, 말을 건네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도와주십시오.

*헌화 - 김춘려 남편 추도 (배기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